

정동영 통합신당 대선 후보 선출

鄭 “이달내 대통합 완성할 것”

44% 득표…2위 손학규와 10%P 차

신당 대선경선 투표 누계

후보	지역선거인단투표	휴대전화투표	여론조사환산득표	총계
정동영	132,996	62,138	21,850	216,984(43.8%)
손학규	81,243	70,031	17,525	168,799(34.0%)
이해찬	54,628	45,284	10,216	110,128(22.2%)

대통합민주신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공식 확정됐다. <관련기사 3·4면> 양길승 당 국민경선관리위원장은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지명대회에서 “정동영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의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역 선거인단 투표와 휴대전화(모바일) 투표,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21만6천984표를 얻어 손학규 후보(16만8천799표)와 이해찬 후보(11만128표)를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제주·울산을 시작으로 한달간 진행된 경선전은 막을 내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또한, 민주신당 대선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인재 후보, ‘강외 대선후보’로 독자행보를 펼치고 있는 문국현 후보간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다.

정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제1 과제로 10월 내에,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합을 100%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창당 후 지난 두 달, 우리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처도 생겼고 분열도 생겼다”며 “그러나 이제 치유와 통합으로 가야 하며 하나가 될 때만 승리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와 특별기숙학교를 300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08년 한 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동영 대선 후보 확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손학규 후보는 연설에서 “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인다”며 “정동영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당과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경선 승복을 선언했다.

이해찬 후보도 연설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동영 후보가 제 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산서 남측 관광객 20여명 부상

구룡폭포 ‘무릉교’ 붕괴

15일 오전 10시40분께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은정리 금강산 내 구룡폭포 인근 출렁다리인 무릉교를 지탱하는

철제 로프가 풀려 관광객들이 5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6면>

이 사고로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송명숙(여·70·광주시 동구)씨 등 남

측 관광객 2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진모(여·57) 씨와 최모(52·여) 씨 등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금강산 사업소 직원 및 남·북측 관광안내원 등이 현장에 출동, 이들을 구조했으며 부상 관광객들은 속초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이날 후보는 이날 후보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제1 과제로 10월 내에,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합을 100%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창당 후 지난 두 달, 우리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처도 생겼고 분열도 생겼다”며 “그러나 이제 치유와 통합으로 가야 하며 하나가 될 때만 승리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와 특별기숙학교를 300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입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08년 한 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적 대협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동영 대선 후보 확정 결과가 발표된 직후, 손학규 후보는 연설에서 “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인다”며 “정동영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신당과 민주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경선 승복을 선언했다.

이해찬 후보도 연설을 통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동영 후보가 제 꿈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 물고기도 못살 정도”

全發研 “환경부 발표보다 오염 심각…농업용수로도 못써”

동탄대교 인근 6등급

영산호의 수질오염 수준이 종전까지 발표했던 환경부의 측정 결과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하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남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16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영산호의 수질은 상류지역 일부 구간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4급수, 8ppm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P)과 질소(N)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지점이 5급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상류 동탄대교 인근 지역의 경우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6등급의 수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장균수의 경우 100m 당 최대 294

천200군수를 기록, 수질기준인 100m

당 5천군수를 4배 이상 초과한 것으



지난 9일 영산호 중류에서 잡힌 기형 붕어(아래). 정상적인 붕어(위)에 비해 머리와 꼬리부분이 많이 훑어져 있다.

로 조사돼 이 물을 마실 경우 설사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수질측정망을 통해 측정한 결과로는 COD가 3급수인 3.1~6.7pp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실제 용역팀의 측정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수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섬 22곳 관광명소 집중 개발

내년부터 10년간 1천959억 투자

해 그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다도해 해상 2천여 개 섬을 유람선과 크루즈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간조명으로 다도해의 밤을 밝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개 테마를 정해 22개 섬에 219억 원을 투입했다. 여수 사도·남도의 ‘생태의 섬’에 64억 원, 신안 ‘다이아몬드제도’에 57억 원 등을 투자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제 52회 광주예술제 미술 일상작 전시회

전시기간 : 12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군남로4가역

광주일보사 ▶문의 : (062)220-0541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젊다고 뭐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처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처표 까스활명수!



부처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끓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혼로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in, 진피, 후박

부처표에는 활명수로 있을 수 있는 나쁜 성분이 없습니다.

11가지 생약성분- 부처표 까스활명수®

부처표 까스활명수는 활명수로 있을 수 있는 나쁜 성분이 없습니다.